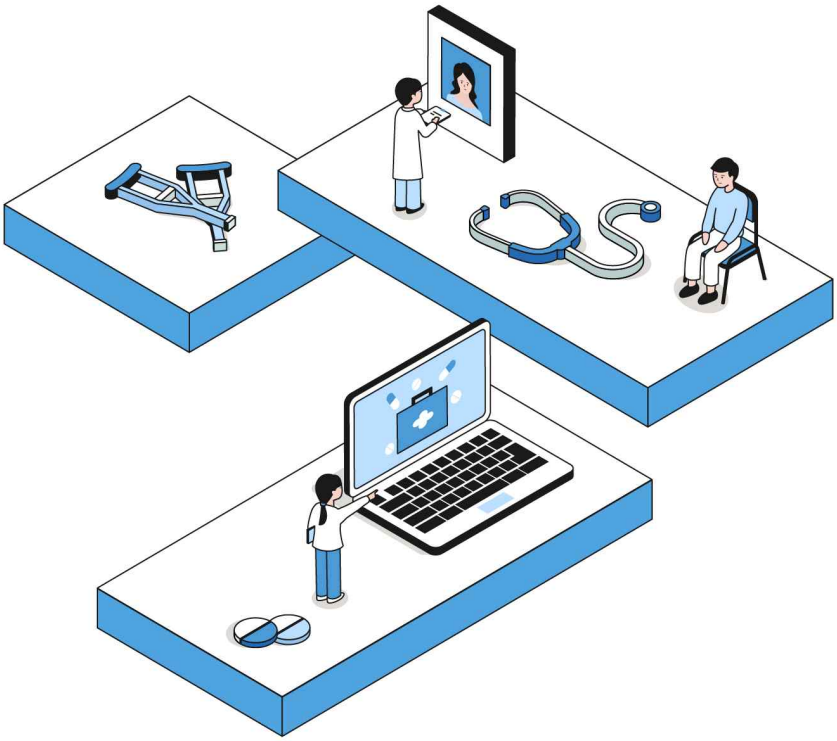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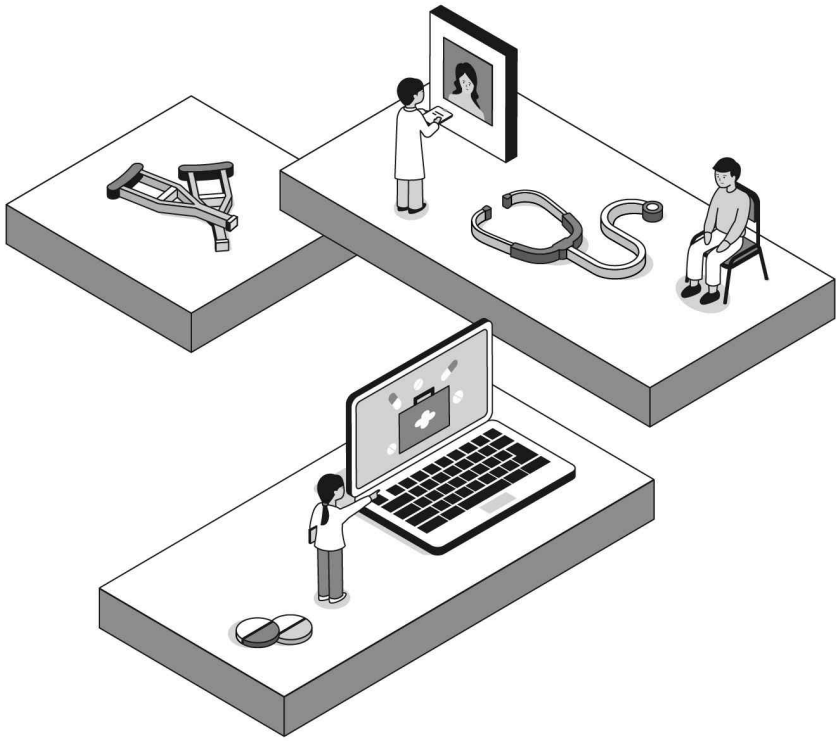
주최 | 컨슈머워치 CFE 자유기업원

참여기관 | 한국원격의료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닥터나우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주최 | 컨슈머워치 CFE 자유기업원

참여기관 | 한국원격의료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닥터나우

I 세미나 개요 I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개요

1 행사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 코로나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가 총 160만 건 돌파** (비급여 진료 미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추세에 발맞춰 국내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G7 국가 전체 합법, OECD국가 중 29개 국가 합법**(일본, 중국 포함)

2 행사 개요

○ 일시: 2021.05.25.(화) 오전 10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 주최: 컨슈머워치, 자유기업원

3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0:00~10:15	15′	개회 - 행사소개 및 내빈 소개 - 개회사: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김병욱 국회의원 영상축사 : 황보승희 국회의원
10:15~10:20	5′	기념사진 촬영
session #1		
10:20~10:50	30`	전문가 발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전망」 - 백남종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10:50~11:00	10′	휴식
session #2		
11:00~11:30	30`	토론 -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세대 교수) -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원격진료 앱 기업)
11:30~11:40	10`	종합 정리 및 폐회 -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

4 주최 단체 소개

단체 이름	단체 소개	대표 이름	주요이력
컨슈머워치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임을 자각하고, 시장의 중심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자여야 한다는 가치로 2014년 출범한 소비자 단체	이병태 (공동대표)	○ 現) 카이스트 교수 ○ 現)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자유기업원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소로서 국회, 기업 등 유관기관과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보고서 및 도서를 출간하는 1997년 출범한 재단법인	최승노 (원장)	○ 現) 자유기업원장 ○ 現)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CONTENTS

Ⅰ 인사말

1.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 13

2.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17

Ⅱ 축사

1. 강기윤 국회의원 ····· 23

2. 태영호 국회의원 ····· 27

3. 김병욱 국회의원 ····· 31

4. 황보승희 국회의원 ····· 35

5. 이영 국회의원 ····· 39

Ⅲ 발제 및 토론

1. 발제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 45

2. 토론

2-1.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67

2-2.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 77

CONTENTS

인사말 I

1.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2.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I 인사말 I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 병 태

인사말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병태**

안녕하십니까?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병태 입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영된 비대면 진료의 국내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한국원격의료학회 백남종 학술위원장님, 한국재정정책학회 김상철 회장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님, 그리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해주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외에도 원격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격진료로 인한 오진과 의료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는 물론 의료비 절감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격진료의 현황과 전망, 원격진료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소비자로서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 5. 25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 병 태**

I 인사말 I

자유기업원 원장

최 승 노

인사말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입니다.

자유기업원과 컨슈머워치가 함께 마련한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주신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세미나를 위해 깊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비 단계부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님,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사회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오늘날의 뉴노멀 현상입니다. 의료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올 3월까지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16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당연한 시대적 욕구이며, 시장에서의 자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착 여건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는 비대면 진료의 국내 정착 방향에 대해 경제, 소비자, 의학적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궁극적으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자유기업원 원장 **최 승 노**

CONTENTS

축 사 Ⅱ

1. 강기윤 국회의원

2. 태영호 국회의원

3. 김병욱 국회의원

4. 황보승희 국회의원

5. 이영 국회의원

I 축사 I

국회의원

강 기 윤

축사

국회의원 **강기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입니다.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님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많은 경제・사회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IT산업이 성장하고, 새롭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택트 문화에 적응하고 또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실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시를 활보하고, 3D 프린터가 굴뚝 공장을 대체하는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퇴보하는 아날로그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차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정보화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IT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산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30개 국가가 이미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 기 윤**

I 축사 I

국회의원

태 영 호

축사

국회의원 **태영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컨슈머워치 이병태 공동대표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과 관계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며 온라인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비대면 방식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등 최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프로세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G7 국가 전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고, OECD 국가 중 29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완전한 합법화를 이루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고, 국내 환자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가 열리는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대면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 영 호**

I 축사 I

국회의원

김 병 욱

축사

국회의원 **김병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과 컨슈머워치 이병태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고 인사를 나눌때에도 악수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는 우리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물론, 의료공급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만성 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제대로 결합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병 욱**

I 축사 I

국회의원

황보승희

축사

국회의원 **황보승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컨슈머워치 이병태 공동대표님과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계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 및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러 산업 직군이 제약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29개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약 16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비대면 의료 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며 정착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비대면 진료 산업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조율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비대면 의료 산업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관심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

I 축사 I

국회의원

이 영

축사

국회의원 **이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변혁의 시대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국내 정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세계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힘 써주신 컨슈머워치 이병태 공동대표님과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ECD 37개국 중 29개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있고, 비대면 진료에 소극적이었던 유럽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채택한 병원의 비율이 2010년 35%에서 2017년 76%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비대면 의료 산업 정책을 통해 앞서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진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전쟁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일시적이나마 비대면 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될 것이고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비대면 의료 산업 발전에 안정적인 토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래에 기업들은 신산업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대전환의 시기 기술강국 대한민국,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 세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단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영**

CONTENTS

발제 및 토론 III

1. 발제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2. 토론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세대 교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I 세미나 자료 I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전망

발제문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백 남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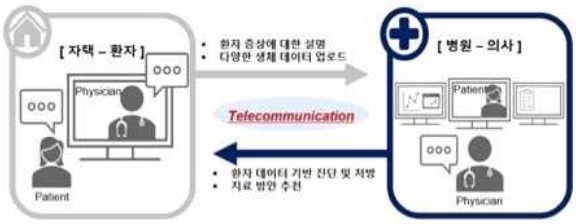
비대면 진료, 국내 정착 방향 세미나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 남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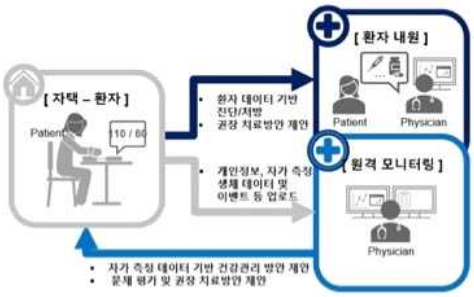
용어의 진화?

- 유헬스
- 원격 의료
- ICT를 이용한 의료
- 디지털헬스
- 비대면 (untact) 진료

원격진료
Telemedicine



원격모니터링
Tele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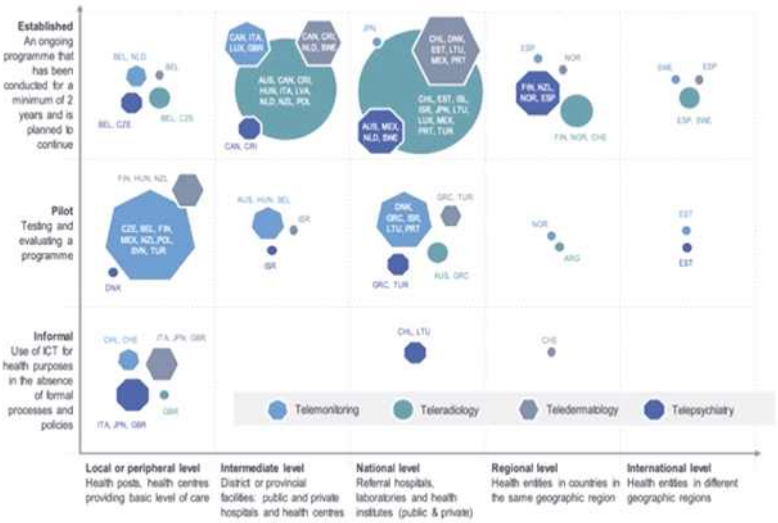
[표 6] 의료 분야에 따른 원격의료 특징과 활용가능성

분야	특징	활용가능성
영상의학과 (Radiology)	이미지와 비디오 중심 의료데이터로,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와 PACS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가능	매우 높음
피부과 (Dermatology)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원격진료 가능	매우 높음
심장내과 (Cardiology)	원격심전도(tele-ECG), 원격청진기 등을 통해 원격진료 가능하며, 급성심근경색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높음
안과 (Ophthalmology)	각막현미경, 검안경(ophthalmoscope), fundoscope를 통해 얻어야하는 진료용 이미지를 휴대폰에 특수장치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진료 할수 있음	높음
정신과 (Psychiatry)	화상 진료와 상담치료를 통한 원격의료 가능	높음
병리학 (Pathology)	특수 현미경을 통해 원격으로 샘플 슬라이드 조작 가능	보통
중환자실 (Intensive Care)	Tele-ICU를 통해 중증환자전문의(Intensive Care Specialist)가 부족한 병원에서 중증환자전문팀과 원격협진 가능	보통
응급의학 (Emergency Care)	응급상황 초기 진찰과 처치 가능	보통
소아과 (Pediatrics)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 가능하며, 아이가 심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집에서 진료 가능하다는 장점	보통
외과 (Surgery)	원격수술과 수술 후 원격관리 가능	낮음
신경과 (Neurology)	일부 증상 원격모니터링 가능	낮음

[자료] Gogia(2020)를 바탕으로 수정

KISTEP Issue Paper, 비대면시대, 비대면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김지연) 2020-10

전세계적인 원격의료 현황



Source: OECD health working papers 2020,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working-papers.htm

국내 원격의료 역사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 1988 ▪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최초 추진
  - 3개 대학병원(서울, 한림, 경북) 및 3개 보건의료원
- 1996 ▪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 치매환자 상담, 재활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 2002 ▪ 의료법 개정: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제도 도입[1] (3월)
  ▪ 월드컵경기장 원격 응급 진료 서비스 시행 (세브란스)
- 2003 ▪ 서울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와 원격 진료
- 2004 ▪ 전남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개발 및 시범지역 운영
- 2005 ▪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가천의대 길병원)
- 2006 ▪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7월)
  ▪ 남극세종기지 원격진료/협진 실시 (고려대 유헬스사업단)
- 2007 ▪ 경남 마산 독거노인 유헬스케어시스템 구축 사업
  - 행정안전부 지원의 독거노인 응급 대비 시범사업
- 2008 ▪ USN기반 원격건강 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 –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 2010 ~2013 ▪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 측정 생체정보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 2014 ~2016 ▪ 범부처 3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2]
  -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 2015 ▪ MERS 감염 대응을 위한 전화 진료 한시적 시행
  - 일부 병원에 제한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 2019 ▪ 강원도 원주 및 춘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최초 허용
- 2020 ▪ (2/18)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 (2/24) 전화 상담 •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강원도 원주·춘천서 전국 최초 '원격의료'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24일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자 한정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격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전국 7개 특구를 발표하면서 이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춘천과 원주 일대 약 77만㎡에 해당한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지역에서 의사의 상담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再診)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가 각 현장을 방문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특정 지역·특정 사업에 한해 법에서 정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금지된 '원격의료'란 특정 사업이 강원도 원주·춘천이란 '특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강원도가 주관"…한발 빼는 복지부

의료기관 3곳 정도 모집…원주·춘천·철원·화천 만성질환자 등 300명 대상 실시
"대면진료 보완 성격…하반기 2차 지정으로 원격의료 허용 지역 더 늘어날 수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주시·춘천시·철원군·화천군 내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등 농어촌 만성질환자 300명을 1차의료기관 3곳이 나눠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의사와 환자가 전화로 소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자문 역할을 한다면서도 결정 주체는 강원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 **등록일** : 2020-03-02[최종수정일 : 2020-03-04] · **조회수** : 15425 · **담당자** : 박은비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기간** : 2020-03-0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2.23.) 및 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20.3.2.)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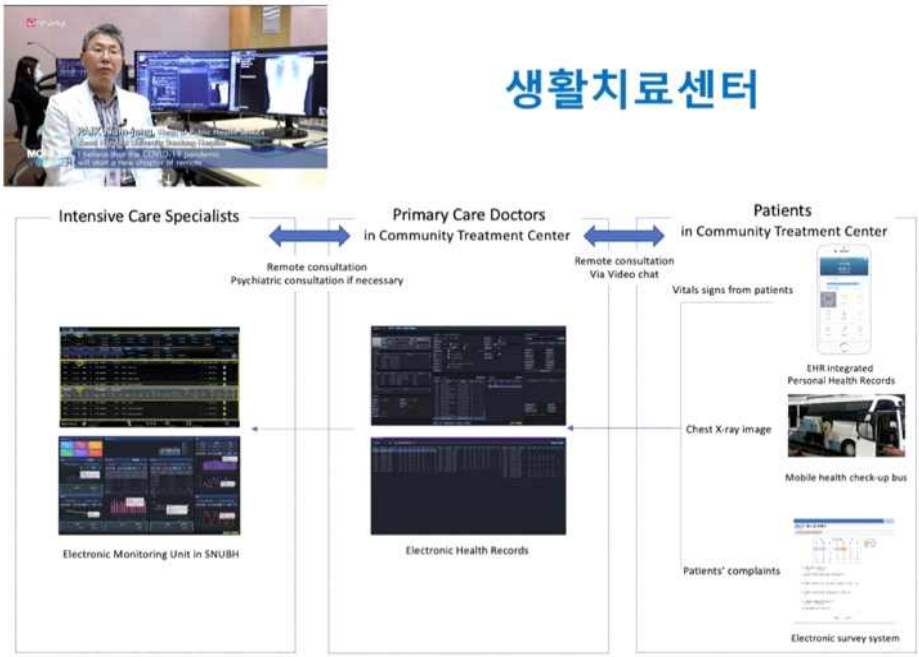
비대면진료: 약처방

KMA 의료정책연구소

구분		총 처방일수	총 처방횟수	비율	1인당 평균 처방일수	1인당 평균 처방횟수
전체		30,856,155	676,611	100.0	71	1.5
종별	상급종합병원	8,125,525	86,171	12.7	128	1.4
	종합병원	9,009,338	153,071	22.6	86	1.5
	병원	1,331,982	33,581	5.0	56	1.4
	의원	12,389,310	403,788	59.7	5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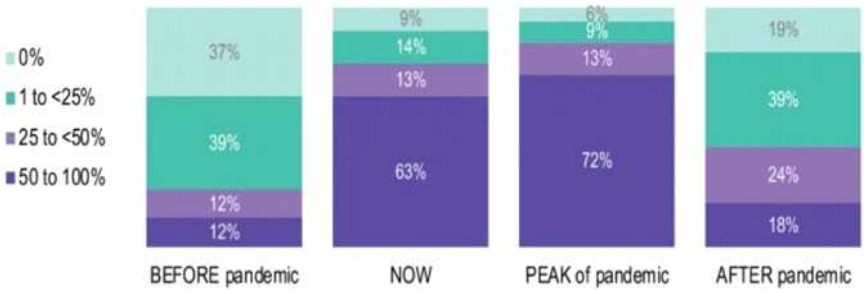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높은 이용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이용: 총진료의 30.7%

주 1) 전체의료기관수: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수 현황 자료(2020년 3월말 기준)
자료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URL: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YadmStatInfo.do



Jung et al. How IT preparedness helped to create a digital field hospital to care for COVID-19 patients in S. Korea NPJ D Med 2020 Dec

The proportion of remote/telehealth (at relevant points of COVID-19 out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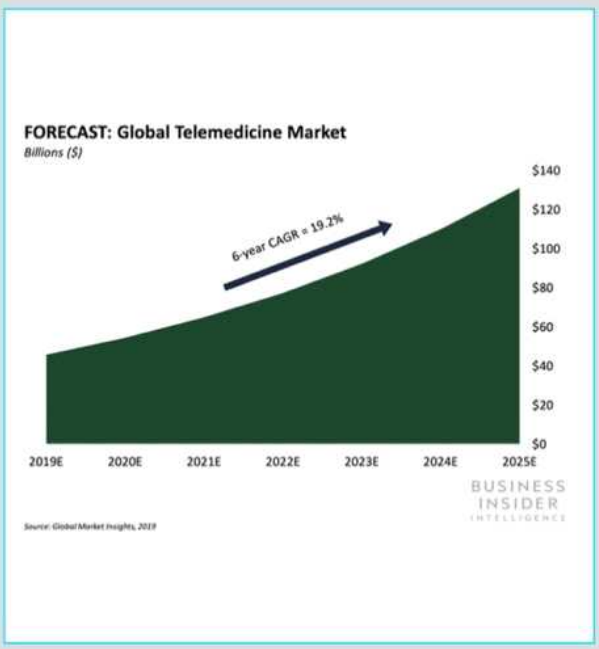
Sermo. COVID-19 HCP sentiment surveys [Internet]. New York (USA): Sermo, c2020. [cited 2020 Jun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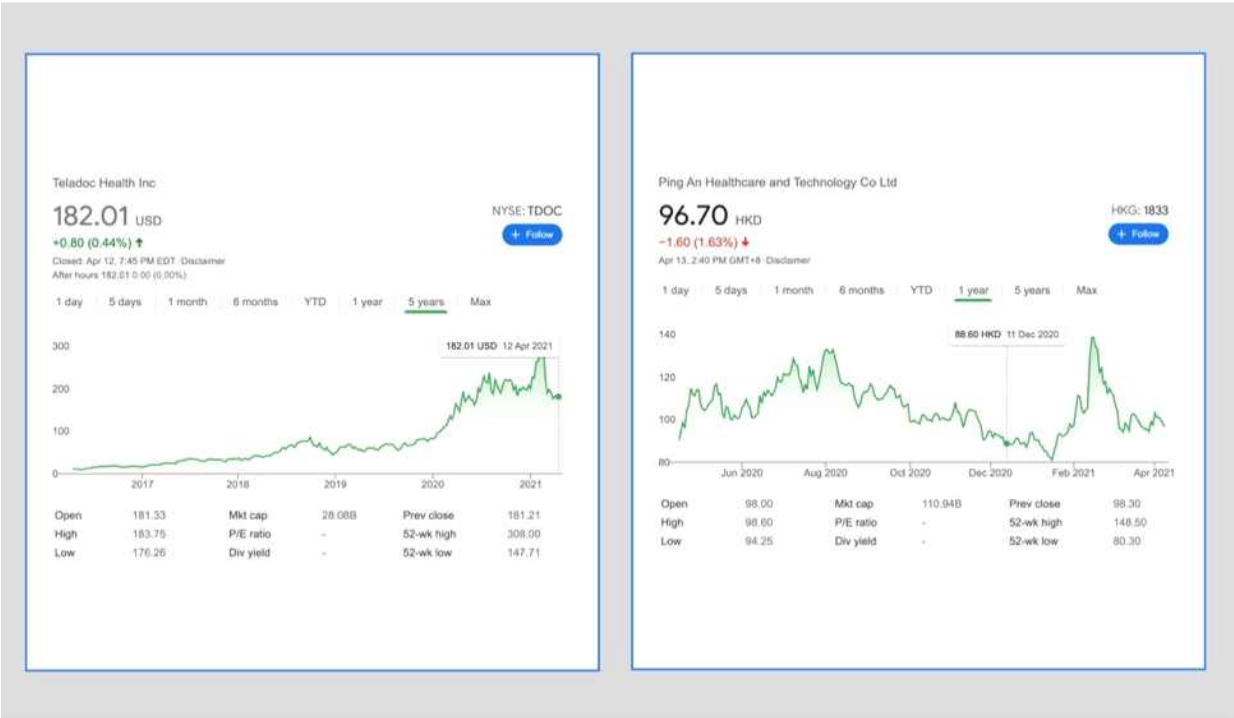
흔히 이야기 되어지는 원격의료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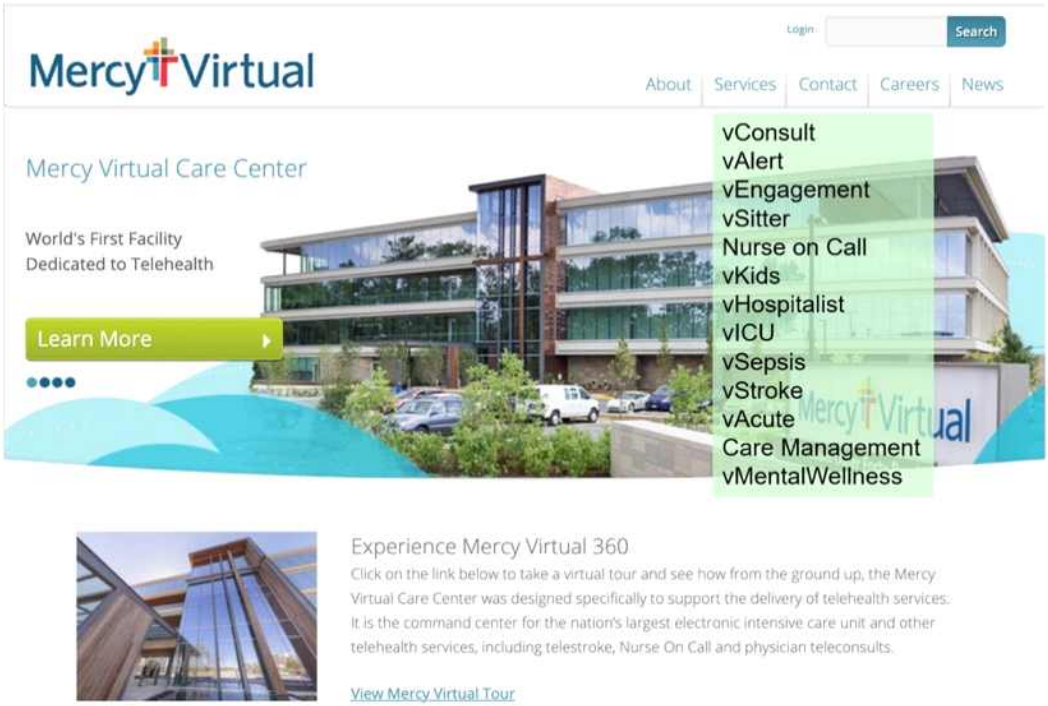
-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신체적 제약 및 장소적 제한이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접근성 확대**

- ***의료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예방/예측 및 개인 맞춤형 중심의 의료 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모의 성장 전망 (2021년 412달러 예측)

- ***보건의료체계 지속성 개선***
  →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명 증대 및 **국민 의료비 절감** 기대




Teladoc Health Inc
182.01 USD
+0.80 (0.44%)
NYSE: TDOC
Follow
1 day 5 days 1 month 6 months YTD 1 year 5 years Max
182.01 USD 12 Apr 2021
Open 181.33 Mkt cap 28.08B Prev close 181.21
High 183.75 P/E ratio - 52-wk high 308.00
Low 176.26 Div yield - 52-wk low 147.71
Ping An Healthcare and Technology Co Ltd
96.70 HKD
-1.60 (1.63%)
HKG: 1833
Follow
1 day 5 days 1 month 6 months YTD 1 year 5 years Max
88.60 HKD 11 Dec 2020
Open 98.00 Mkt cap 110.94B Prev close 98.30
High 98.60 P/E ratio - 52-wk high 148.50
Low 94.25 Div yield - 52-wk low 80.30


Mercy Virtual
Login
Search
About Services Contact Careers News
Mercy Virtual Care Center
World's First Facility
Dedicated to Telehealth
Learn More
vConsult
vAlert
vEngagement
vSitter
Nurse on Call
vKids
vHospitalist
vICU
vSepsis
vStroke
vAcute
Care Management
vMentalWellness
Experience Mercy Virtual 360
Click on the link below to take a virtual tour and see how from the ground up, the Mercy Virtual Care Center was designed specifically to support the delivery of telehealth services. It is the command center for the nation's largest electronic intensive care unit and other telehealth services, including telestroke, Nurse On Call and physician teleconsults.
View Mercy Virtual Tour

법률적 문제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 반면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 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법률적 문제

- 원격의료를 위한 두가지 조건

- 첫째는 원격의료의 상대방이 의료인이어야 함.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은 (중략)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두 번째 조건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법률적 문제

- 또한 의료법 제34조는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전원된 환자나 외래재진환자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소비자, 환자의 입장

- 편리하다 (어짜피 3분 진료라면)
- 병원가기가 너무 힘들다 (취약계층)
- 의료기기 오작동
- 그래도 의사의 얼굴을 봐야
- 고가의 의료기기
- UX
- 보안, Privacy
- 시민단체의 반대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의견 조사 (2018)

조사기관 ▪ 한국소비자원

조사목적 ▪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파악 (원격의료 도입/이용 의향 및 우려사항 등)

조사대상 ▪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거주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결과

원격의료 이용의향

82.6%이 향후 원격의료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단계별 이용의향

'의사간 진료' ~ '재진부터' 이용의향이 약 94%이상임

[우려 사항]

- ✓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 ✓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
- ✓ *대면진료 대비 의료품질의 저하*
- ✓ *의료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우려*

⋮

공급자, 의사의 입장

- 결국은 의료, 진료
- 오진의 위험,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
- 의료접근도가 너무 좋다.
-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수익성은 별로 (행위별 수가)
- Technical readiness 비용
- 대형병원 쏠림
- 원격진료 전문 업체

원격의료에 대한 단체별 이해관계

단체	의견
대한병원협회	▪ 의료의 본질적 측면 및 효과성을 고려, **대면진료 원칙 유지** ▪ 단, 원격의료 필요시 엄격한 범위제한 필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충분히 검증**) ▪ 의원급 및 병원급 모두 허용하여 환자의 선택권 보장 필요
대한의사협회	▪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및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 **장비구입 및 관리 비용 등으로 국민 경제 부담 가속화** ▪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해외사례에 적합, 한국에 부적합 ▪ 원격의료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책임소재, 정보보호 및 환자 안전 위협 우려 ▪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재추진은 부적절
대한한의사협회	▪ 대병병원 쏠림으로 동네의원과 지방병원 붕괴로 **의료 질서 파괴 우려** ▪ **의료영리화**와 연계되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우려
대한간호협회	▪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보건지소 및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 ▪ 비용 대비 효율성 불분명,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및 노인 계층의 소외 우려 ▪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대한약사회	▪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고가 장비 구입,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등 초래** ▪ 동네의원-약국 전달체계 붕괴, 취약지는 보건지소 등 확대가 바람직함

대학병원-약사단체,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 놓고 갈등

김찬혁 기자 | 입력 2021.04.06 12:58 | 수정 2021.04.06 14:37 |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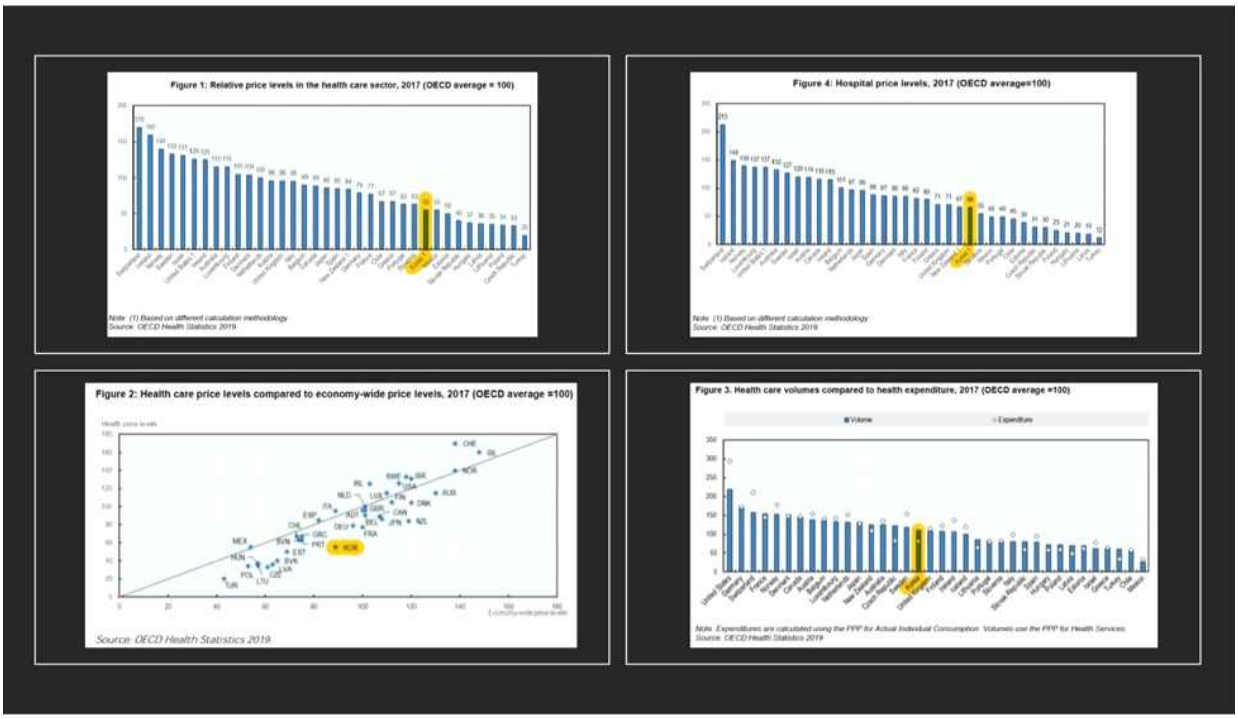
약사회 "민간주도 전자처방전 도입 시 피해 약국 발생"
병원 "스마트병원 일환…환자 편의성·홍보 효과 확보"

정부 (보험회사)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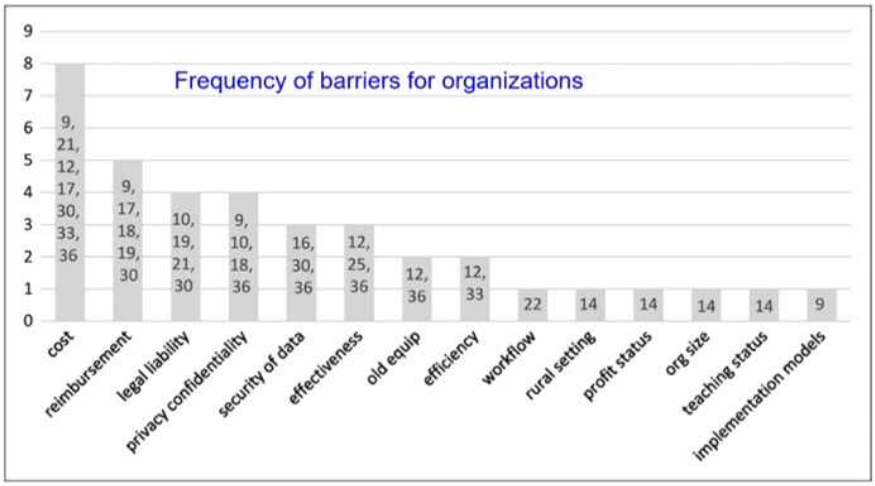
- 보험 재정의 문제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관리)
- 미래의학: Preventive, Predictive, Precision, Participation
- 커뮤너티케어

산업계 입장

- 작은 국내 시장규모 (한국은 전세계시장의 2%)
- FDA, CE, 식약처 (포지티브 규제)
- 국내에서 안써주니 외국에서도 써 줄리가
- 식약처 -> NECA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 단일 보험 체제 (정부가 보험회사) – 수가가 싸니까 경제효용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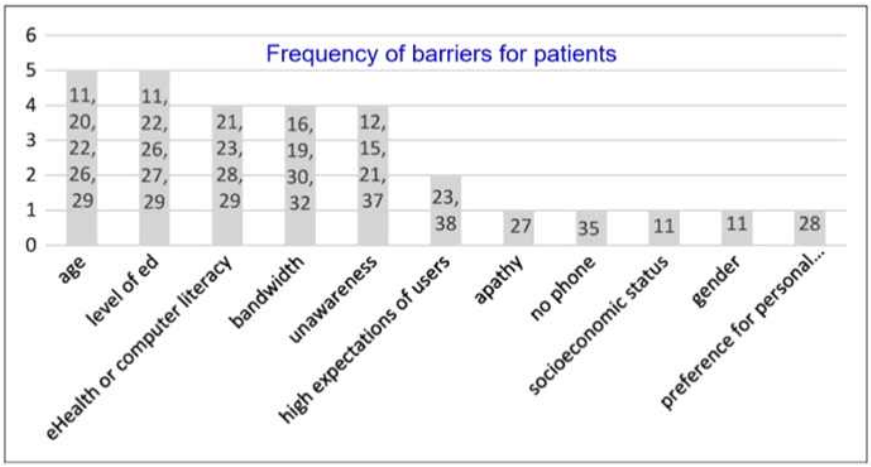


원격의료 도입 장벽 (해외)



Source: Scott Kruse C, Karem P, Shifflett K, et al. Evaluating barriers to adopting telemedicine worldwide: A systematic review. J Telemed Telecare 2018;24:4–12.

원격의료 도입 장벽 (해외)



Source: Scott Kruse C, Karem P, Shifflett K, et al. Evaluating barriers to adopting telemedicine worldwide: A systematic review. J Telemed Telecare 2018;24:4–12.

원격의료 도입 장벽

- 규제
- 지불 모델 부제
-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 도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할 요소 및 제안

- 사회적 합의
- 정부의 지원
- 법적, 제도적 정비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보험)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할 요소 및 제안

- 산업적 접근보다는 환자의 편의성, 미래의학으로 생각하자. (영리화 우려의 해소)
- 쉬운것 부터 시작하자. 격리상황, 재난상황, 의료취약계층->만성질환 모니터링->단순재처방-> 남성의학->공공의료...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하자. '개원가-대학병원'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하자.
- 서비스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자.
- 개인정보보호
- 기승전수가
- 지불제도를 바꾸어야 (Value-based reimbursement,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Hospital at home (Johns Hopkins Hospital)

전화화상진료센터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운영

- 장소 : 1동 3층 산청실
- 기간 : 4/12(월) 부터
  (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기간 동안)
- 대상 : ① 재진환자 (신초진 제외)
  ②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③ 약,검사 처방 동일

- 진료 일정

	월	화	수	목	금
오전	박*수(IMG)	김*현(PED)	오*정(IME)		정*철(IMN)
오후	서*원(IMC) 김*민(PED)	신*민(IMG)		안*호(IME) 백*종(RH) 김*석(RH)	

2021. 04. 15.

[대한의사협회]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무상 모니터 지원) 관련 협조 요청

정부에서 민간업체(비트컴퓨터)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료 모니터를 제공(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처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료 모니터 제공을 통해 원격진료의 기반을 마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원격진료 진행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무상 제공 모니터 수령은 거부해주시고, 이미 제공 받은 모니터는 반납해주시기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신문
DOCTOR'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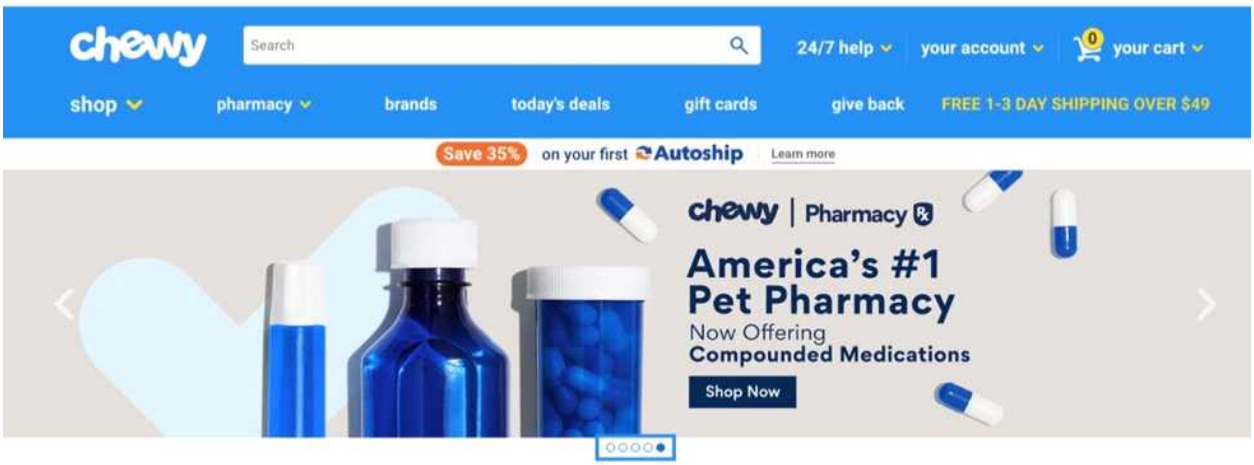
HOME > 의사·협회

[의협 총회] 일차의료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 목소리'

이영재 기자 | 승인 2021.04.25 17:51

의료계와 협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의사가 주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공지능 발달과 비대면진료 환경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비전문가나 대형병원 중심이 아니라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대의원회에 부의토록 했다.



| 세미나 자료 |

방어적 전략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이동

토론문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한세대 교수
김 상 철

방어적 전략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이동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세계적 차원에서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만성호흡기병, 암, 비만 등의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노인성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화관련 퇴행성 질환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원격 의료의 성장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진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의료 선진국에서는 원격의료가 모바일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모바일헬스를 넘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환자관리 서비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상내원,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등으로 시장이 이미 세분화 되어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진입.
-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하여 2019년 614억달러(약 69조원)에서 2027년 5,595억달러(약 627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약과 의료계 반발로 출발도 못하고 있는 실정

□ 해외 사례

○ 미국

- 2020년 3월 6일 이후 한시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원격의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
-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 및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원격의료로 인정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 요건을 완화, 메디케어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미국 메디케어 원격의료의 형태로는 운영방식에 따라 메디케어 원격의료(Medicare Telehealth Visits), 가상내원(Virtual Check-ins), 온라인 환자포털(E-Visits) 등이 있음
-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등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료수가(醫療酬價)가 존재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보상기준 등은 주(州)별로 상이

- 미국의 대표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텔라닥은 시장 수요 폭증으로 지난해 상반기 원격의료 매출 약 1억 달러, 이용자 수 약 7300만명을 기록, 2019년 상반기 매출 대비 147% 증가, 이용자는 5600만명에서 6개월 만에 1700만 명이 증가한 수치.

○ **유럽**에서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원격 의료서비스 환경을 선도하고 있으나 D2D (doctor to doctor, 의사간)분야가 중심

○ **영국**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의료를 적극 활용. 2020년 3월 5일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공적의료보장제도)에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 및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로 권고하여 대면 진료를 줄이도록 하였음.
- 코로나 환자를 비롯한 일반진료 환자 중 NHS 가입자는 2021년 4월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환자의 진단이 가능한 영상진료(Online Consult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영국의 원격의료 관련 프로그램 NPfIT(National program for IT in NHS)는 의료인간의 자문이 가능한 PACS시스템과 의료기관 간 초고속 인터넷망 N3네트워크, 환자 예약시스템(Choose and Book) 등이 포함
-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 진단은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 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함
- 삼성전자가 2021년 5월 11일 영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마(Huma)'에 투자, 집에서 질병 관련 각종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갖춘 업체. 휴마의 디지털 '가정 병원' 및 분산형 임상 시험 플랫폼은 스마트폰의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 임상의, 연구자 및 의료 시스템을 지원, 임상의가 모바일앱을 통해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다양한 웨어러블 및 기타 장치를 사용해 심박 수 및 산소 포화도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 회사 측은 임상의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평소보다 두 배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에서 협력하는 일부 병원의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 병원 입원 환자 3분의 1로 감소, 휴마는 환자로부터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진단, 치료 및 예방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독일**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의료의 디지털화를 준비, 2015년 e-Health법(E-Health-Gesetz)이 통과되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연방정부는 의료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 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 시스템에서 최신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여 치료의 품질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앱기반 처방을 시행하는 등 원격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 독일 16개 연방 주 가운데 7개 주에서는 이미 디지털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며,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
- 2019년 11월 7일 독일 하원의회(Bundestag)는 디지털 헬스케어법(Digital Healthcare Act; Digitale-Versorgung-Gesetz, DVG)를 통과. 원격의료 이용을 장려하고 법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에게 치료 목적의 10개 항목 디지털헬스 어플리케이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저위험 의료기기이며 주요 기능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피보험자는 디지털헬스 어플리케이션 보장 받을 수 있음.
- 전자의료카드(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eGK): 환자의 의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의료의 기반, 2015년 1월 1일부터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 대신에 전자의료카드가 사용. 2017년 12월부터는 연방 전체에 통신기반시설이 도입됐으며, 첫 단계로 의원과 치과의원이 연결됐고, 이후로는 병원, 약국 등에 통신기반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중.
- 전자처방전: 영상 면담 중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받고 나서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약품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배달, 혹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직접 약을 살 수도 있으며, 환자가 원하면 종이에 인쇄된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음.
- 건강 앱 처방제도: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혈당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건강 앱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 건강 앱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공공의료보험에서 지급된다는 제도를 신설
- 맥킨지가 2018년 발표한 'Digitizing healthcare-opportunities for Germany'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원격의료 솔루션을 도입하여 총 340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종이 없는 데이터(paperless data), △온라인 소통(online interaction), △업무 자동화(work flow automation), △결과의 투명성 및 결정 지원(outcome transparency/decision support), △환자 자가치료(patient self-care) 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원격의료 서비스 스타트업인 '카라케어(Cara Care)'는 소화장애 등을 완화하는 디지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앱 기반의 문진표 및 식단계획 제공, 필요시 의료진과의 화상채팅을 제공

- 독일 뮌헨에 위치한 ‘ 텔레클리닉(TeleClinic)’은 온라인 앱 및 화상통화를 기반으로 의료진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 텔레클리닉을 활용한 진료도 기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

○ **프랑스**

- 2018년 프랑스 정부는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합법화하여, 의료보험 70%까지 적용(일반진료와 동일), 2020년 말까지 노인복지시설과 의사가 부족한 모든 지역에 원격진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의료사막화(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기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적용 규제를 2020년 5월 31일까지 완화, 기존에는 영상, 음성통화를 통한 원격진료상담을 진행하기 전 12개월간 주치의가 직접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현재는 기존 진료 내역이 필수적이지 않음.
- 프랑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는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 또는 합병증세가 없을 경우엔 응급실에 가지 않고 우선적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의사 부족으로 정부 공인 간호사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

○ **대표적인 프랑스의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 **Doctolib:** 2013년 프랑스 병원 예약 플랫폼으로 시작, 2019년부터 본격적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 프랑스와 독일 지역 의료진 7만 5000명과 헬스케어 관계자를 중심으로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기업가치는 11억 달러 이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 중 하나임.
- **Medaviz:** 프랑스 브르타뉴(Bretagne) 지역의 스타트업으로 8000명의 의사가 등록
- **MesDocteurs:** 새로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사들을 위해 매일 2개의 온라인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집중훈련프로그램을 운영.
- Otzii: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원격진료 플랫폼인 케어(Qare)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원격진료 후 처방전에 맞는 약을 배달.

○ **일본**

- 2014년 법개정으로 스마트폰 앱 등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승인,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한 일본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도 지원, 원격 약 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 일본의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의료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는 ‘원격의료(遠隔医療)’ 대신 ‘온라인진료

(オンライン診療)'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 병원 내에서만 이뤄지던 전통적 치료를 거쳐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핵심 축으로 자리,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규제완화로 2020년 3월 이후 주치의 등의 판단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진료 및 진료에 의한 약제의 처방 가능,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초진을 포함해 모든 온라인 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 2020년 4월 7일 '신종바이러스 감염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온라인 및 전화 진료와 복약지도에 대한 특례는 만성질환자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 행위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초진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12월 17일부터 네이버 라인은 소니 계열사인 M3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라인 헬스케어를 통해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작. 이 서비스는 일본 도쿄 등 수도권 내 일부 의료기관과 손잡고 병원 검색 및 예약, 진료와 결제까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을 통해 이뤄짐. 이에 따라 이용자는 라인을 이용해 의사와 영상 통화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라인 헬스케어는 일본 내 월 이용자가 8,600만명에 이르는 라인을 통해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M3가 운영하는 의료 전문 사이트인 'M3닷컴'은 일본 임상의 가운데 90%인 29만명 이상의 의사와 일본 약사의 과반수인 19만명 이상의 약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 **중국**

- 중국은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지원책은 '온라인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
-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기초로 '온라인 병원'설립을 허가하고 본격적인 원격의료 보급이 시작. 2018년 '인터넷+'전략과 접목시키고 원격의료와 의료보장체계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온라인 진료관리방법> 등 3개 규범화정책을 통해 구체적 관리기준을 구축.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당국은 방역에 원격의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정
- 온라인 병원: 온라인 병원은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문진, 자문, 진료, 전자처방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인터넷+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생긴 새로운 형태의 병원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품질 향상이 주요 목적이다. 2020년 10월 기준 전국에 온라인 병원 900여 개가 운영 중
- 원격의료 플랫폼: AI,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환자 간(B2C) 연결. 주로 온라인 예약, 온라인 건강 자문, 처방전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 중국의 대표적인

원격의료 플랫폼은 웨이닥터(微醫), 핑안굿닥터(平安好醫生), 딩상위안(丁香園) 등.

- 쓰촨·칭하이·광시·안후이·허난 등 23개 성(省)과 시(市)에 있는 300여개 소규모 병원의 환자들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대도시 유명 병원의 전문의 2000여명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명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무인 진료실에서 혈압과 체온을 재고 인공지능(AI)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하면, 이를 기초로 원격지의 의사가 약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등장. 중국 원격의료 기업인 징둥헬스의 이용자 수는 평소보다 열 배 정도 늘어 월간 200만명에 도달.

□ 한국의 상황

○ 시범사업만 20년

- 시범사업 2000년 이후 20년 경과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원격의료를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함.
-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반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놓고 있다.
- 이 결과 우리나라는 시법사업만 하는 나라가 되어, 선진국 가운데 원격치료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로 전락, 작년 2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전화 상담과 처방 등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 원격진료의 패러독스:** 국내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에 진출, 국내 교정시설

- 타쉬켄트 인하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때, 양국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연회에 참석, 시연회는 한국의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영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빨라진 통신망과 정확한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원격의료의 핵심,
- 우리의 기술과 의술을 접목한 e-헬스는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 투르크메니스탄과 e-헬스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e-헬스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자 행동계획을 채택, 이러한 협의 들을 통해 앞으로 해당 국가들의 병원정보화, 원격진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에 한국 정부와 의료기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교정시설: 2005년 안양교도소는 세계 교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원격진료를 시행,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

- 일본에 네이버의 라인 헬스케어로 해외 원격진료사업에 진출
- 병협과 의협의 갈등: 의협과 병협은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지난 2020년 6월 4일 병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을 만장일치로 결정, 의협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입장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 8일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 2014년 법개정 추진시에도 의협과 병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열.

○ **원격진료의 활성화 방안: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격의료의 확대는 더 이상 버틸수 없는 현상임.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동네병원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 혹은 불만은 명분이 약함.
- 수가 조정 등으로 의료계의 근본적 불만을 해소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취하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음.
- 의료계는 의료계의 이해에 집착하는 근시적 방어적 전략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바이오 헬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라는 국가전략차원의 적극적인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
- 일반 국민들의 다수가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주권의 강화라는 측면 고려
- 정치와 행정의 적극적인 중개 역할

□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마트워치 보급과 원격진료**

- “건강관리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형 밴드를 전 시민에게 보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오 전 시장은 “개인의 운동량, 건강정보의 기록과 전송을 통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개개인의 위치정보를 기기 내(On Device)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겠다”며 주치의가 서울시민의 스마트 워치를 통해 전송된 건강상태 및 중증 질환 전조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
-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헬스케어 정책이 사실상 원격의료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
- 실제 적용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정부가 ‘스마트 네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600만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 세미나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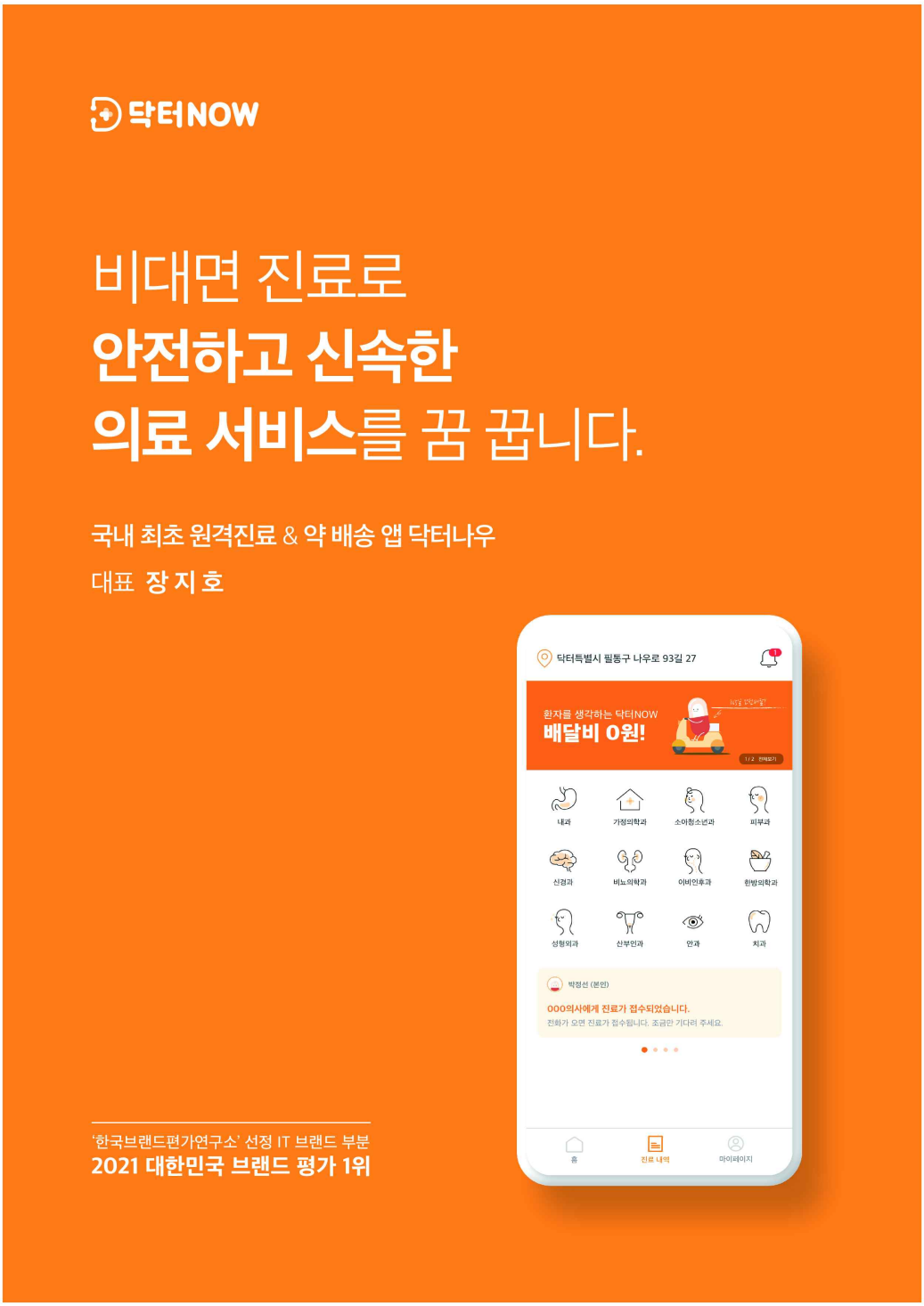
산업계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현황 및 계획

토론문

닥터나우 대표
장 지 호

산업계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의 현황 및 계획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Company Mission

가장 쉽고 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가려고 반차 쓰는 '**직장인 환자**'
약을 처방 받기 위해 '**1분 진료받는 환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환자**'
의사, 약사, 환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Company History 2020

12월 –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공식 파트너사 선정

11월 –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가능' 서면답변 확인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 닥터NOW 앱 출시**

10월 – **KTB 벤처챌린지 최우수상,** KINGO-AIBI리그 **창업경진대회 AI분야 대상**

07월 – Google Korea x 중소벤처기업부 공식지원 '창구'프로그램 선정

06월 – **네이버 펀드 등 전략투자 유치**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우수상 수상

05월 – 대기업 특허권 단독양수(POSCO ICT)

04월 – KOTRA 글로벌 300, 기술보증기금 KIBO CAMP 선정
SBS 모닝와이드 출연
AI 양재 허브센터 AI기술화 지원 협약

03월 – 콜로나 맵 앱 서비스 런칭
배달약국 베타 서비스 런칭, 처방약 배달 시작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비대면진료

2021년 3월까지 총 160만건 (비급여 미포함)

- "사실상 정착될 전화상담·처방제도...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의료 질 평가 필요" 출처 : 의료계 전문지 메디게이트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출처 : 의료계 전문지 메디게이트

코로나 이후 전화진료 80만건…예원가 절반 이상 (데일리메디) 1일 전

코로나19 사태 속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약 80만 건에 육박하고, 미중 의원급은 절반을 넘는 약 4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반대 주요 논리 중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열렸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가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2021년 3월 말까지 약 160만 건의 비대면 진료 (급여처방) 가 이뤄졌고, 비급여 처방까지 합쳐진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불가했던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국민적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Customers Of Telemedicine

현재는 가벼운 감기 환자부터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반복 처방 환자,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엔 탈모약, 비아그라, 사후 피임약 등 저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Problem

대면진료는 지금껏 **가장 유일한 진료 수단**이었습니다.

17회	30.4%	9.4%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 비율	경상의료비 성장률

하지만 대면진료를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대면 진료 시장은 연간 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회로 OECD 평균의 3배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은 높은 빈도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반면 장시간을 대기하고,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으며 항상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1분 진료를 보기 위해 30분을 넘게 기다리는 환자분들, 어쩔 수 없이 반차를 쓰는 직장인들, 병원을 가기 위해 배를 타서 육지로 오는 도서지역 환자분들까지. 모든 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닥터나우'가 탄생한 것입니다.

Problem

그런데 사실 한양대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본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 것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기조 아래에 한시적 허용이라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됐지만, 사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즉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되서는 안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Our Clients

닥터나우는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 서비스까지 함께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누적 이용자 30만명, 누적 진료 수 10만 건(처방전 기준)이며, 의료 사건은 '0'건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성과로는 지금까지 대면 진료의 30.4%를 차지했던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Market Staus

코로나19 이전 : CAGR 14.7%
코로나19 이후 : 5년간 **CAGR 38.2%**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2020.05)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시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미 G7 국가의 모든 국가, OECD 국가의 29개 국가가 코로나19 이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CAGR(연평균 성장률) 이 14.7%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38.2%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텔레닥, 중국의 핑안굿닥터,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 라인 헬스케어가 '원격진료 + 의약품배송' 산업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감

비대면 전화진료 79만건, 의원 54.5% 최다

고혈압, 당뇨 등 60대 이상 환자 많아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시작되고 9월 20일까지 총 79만 6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20.9%, △상급종합병원 12.5%, △병원 7.7%, △한의원 2.8%, △요양병원 1.5%, △치과의원 0.04%, △한방병원 0.02%, △치과병원 0.01%이 뒤를 따랐다.

▲ 신현영 의원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12만 8351건으로 43.6% △당뇨병 20.5% △기관지염 8.1% △고지질혈증 5.8% △위식도역류병 5.6% △치매 5.5% △뇌경색증 3.1% △갑상선기능저하증 3.1% △알러지비염 2.5% △협심증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총 전화 상담·처방 진료량 및 전체 청구대비 비율 (2020. 2. 24. ~ 9. 20.)

(단위: 건)

구분	초진	재진	총계	비율
상급종합병원	2,744	96,821	99,565	12.5%
종합병원	5,331	161,596	166,927	20.9%
병원	3,886	57,616	61,502	7.7%
요양병원	229	11,583	11,812	1.5%
의원	47,213	386,866	434,079	54.5%
한방병원	7	185	192	0.02%
한의원	5,946	16,342	22,288	2.8%
치과병원	18	98	116	0.01%
치과의원	94	220	314	0.04%
총계	65,468 (8.2%)	731,327 (91.8%)	796,7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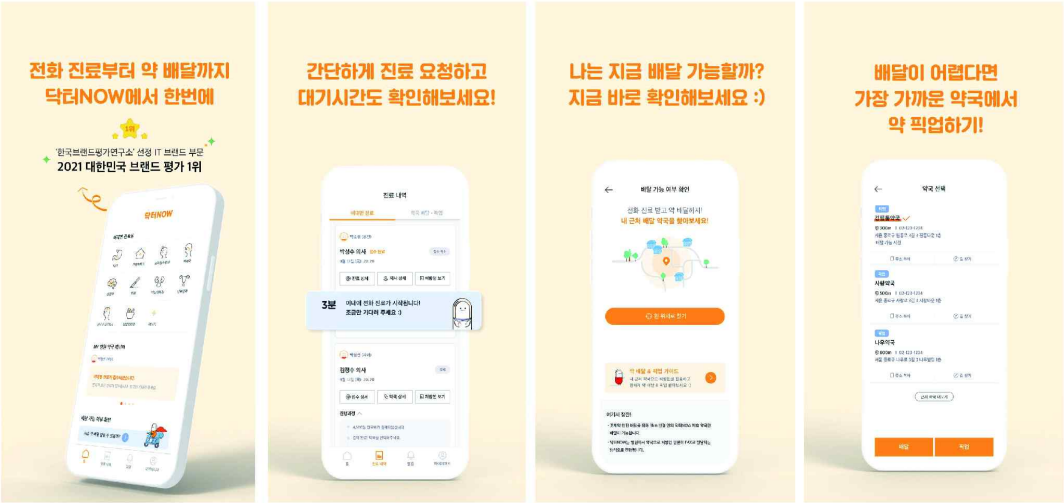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실 제구성

비대면 진료를 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결된 상황. 의원급 병원 이용 비율이 54.5% 로 절반 이상임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분들께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12.5%, 의원급이 54.5%로 의원급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9.20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실 공개)

닥터NOW

서비스 소개



물론, 서비스를 운영하며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많은 소비자들의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국회, 의료계, 학술계, 산업계, 소비자 간의 적극적인 논의로 인해 우리나라 진료체계의 큰 혁명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5월 25일

(주)닥터나우 대표

장 지 호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주최 | 컨슈머워치 CFE 자유기업원